

발기부전의 확실한 해결책

발기부전은 음경의 고장난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자생할 수 없는 음경 내부에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되찾아주는 방법이 음경보형수술이다. 재료는 생체내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실리콘이나 폴리우레탄 제제 등인데 수술방법은 보형물 내에 액체가 이동함으로써 수압을 조절하여 팽창 이완되는 수압식과 여러 종류의 심(芯)을 이용하는 비수압식이 있다.



鄭定萬
〈준남성클리닉 원장〉

포유 동물의 연장에는 뼈가 들어 있어 사람처럼 발기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고등 동물로 진화할수록 음경골(os penis)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類人猿)에 이르면 1~2cm 정도의 무의미한 구조로 남아 있다. 고래의 페니스는 길이가 2m, 몸체에 가까운 음경 부위의 둘레가 40cm나 된다. 개(犬)는 음경골(陰莖骨)이 요도의 통로로 존재한다. 또 곰이나 늑대의 음경골은 교미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다람쥐 음경골은 종(種)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 다람쥐의 분류 기준으로 이용된다.

다람쥐의 음경골은 칼날처럼 날카로우며 암컷 다람쥐의 처녀막을 파열시키는 기능을 한다. 수달의 음경골은 매우 견고하여 수컷 수달이 적과 싸울 때 적의 음경골을 타깃으로 삼아

그것을 부러뜨려야 승자가 된다고 한다. 음경골은 발기조직이 발달되지 않은 포유동물에 존재하지만 사람은 훌륭한 발기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경골이 없다. 그 대신 발기 부전증의 병고를 감수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

음경보형수술은 바로 포유동물 세계의 음경골에서 착안한 것이다. 자생할 수 없는 페니스의 몸통에 딱딱한 막대기를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음경골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며 발기기둥 내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여성의 질내 삽입에 충분한 음경 강직도를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아직까지 발기 부전증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고장난 음경에 보형수술

발기는 완전 자동화된 기전에 의해 발휘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운전 기술 보다는 음경의 작동체계(Operating system)가 주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음경의 자동시설이 고장난 상태가 발기 부전증이다. 자동시설이 망가진 음경은 기존 시설을 포기하고 음경 내부에 새로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발기를 수동화(手動化)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되찾아 주는 방법이 음경보형수술이다. 따라서 이 수술은 음경의 발기력을 생리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기구의 힘을 빌려 질내 삽입이 가능한 강직도를 만들어 주는 인공 발기(artificial erection) 또는 대체 발기(substitute erection)를 이루게 해주는 기법이다.

이 수술은 성욕이나 성감, 또는 극치감이나 사정 능력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질내 삽입이 가능한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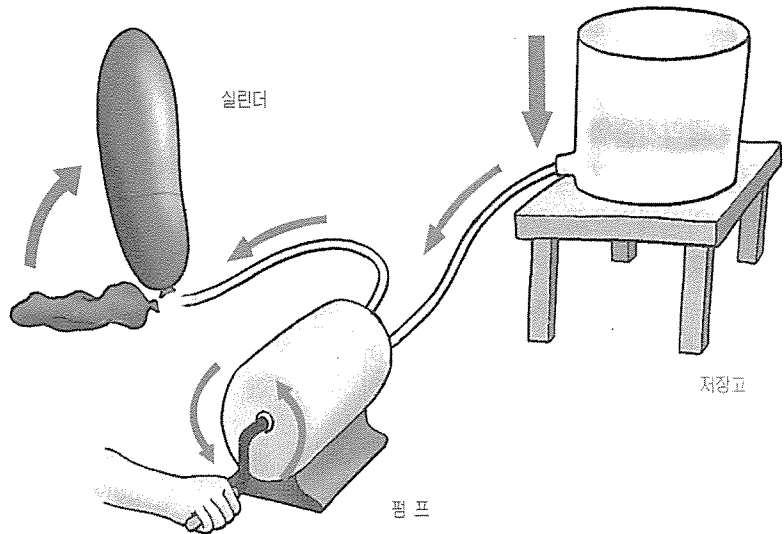
경 강직도를 부여하여 질강 내에서 자유로운 피스톤 왕복운동을 가능케 해주는 수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섹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는 환자도 있다. 음경 보형물 삽입술은 모든 기질성 발기 부전증과 정신과적 치료에 실패한 심인성 발기 부전증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여러 가지 발기 유발법, 즉 해면체내 자가 주사, 요도좌약 주입법, 진공 발기기구의 사용, 약물 복용 등과 같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시도한 다음 여의치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음경보형술을 선택한다. 가장 바람직한 음경 보형물 삽입술 후보자(候補者)로는 성욕, 사정능력, 극치감과 음경 감각에 이상이 없는 기질성 발기부전증이

실리콘·우레탄 제제 사용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음경 보형물의 재료는 생체내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실리콘이나 폴리우레탄 제제이다. 이들 제제는 부러지지 않고 굴곡성이 뛰어나며 삽입이 쉽고 강직도가 우수할 뿐 아니라 인체 조직 내에서 이물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 가장 이상적인 보형물 재질로 알려져 있다.

각 보형물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 음경의 크기와 형태, 해면체내 병변 유무, 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환자의 능력, 환자의 전신 건강상태, 환자의 연령, 환자의 경제적 능력, 환자와 성배우자의 기대치 등을 고려하여 보형물의 종류를 선택한다. 현재 13종류의 음경 보형물이 사용되고 있다. 보형물 내부에 액체가 이동



▲ 수압식 보형물의 원리

함으로써 수압을 조절하여 팽창, 이완되는 수압식과 애당초 실리콘과 여러 종류의 심(芯)을 이용, 정상적으로 발기된 음경의 강직도 만큼 경도(硬度)를 만들어 주는 비수압(非水壓)식이 있다.

수압식은 실린더, 펌프, 저장고를 서로 연결하는 관(管)을 통해 액체가 왕복함으로써 실린더가 팽창, 수축되는 정교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실린더 내부로 액체가 유입되어 팽창되면 실린더 내부에 형성된 수압으로 음경이 발기되고 실린더내 액체가 유출되어 저장고로 이동하면 실린더가 쪼그라들어 음경이 다시 이완된다.

즉 기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액체의 이동으로 음경의 발기, 이완 상태를 만들어 주는 셈이다. 비수압식 보형물은 수술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소 마취로 쉽게 시술받고 수술 당일에도 퇴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강직상태를 유지하는 특성 때문에 은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대중 목욕탕이나 락카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수압식 보형물이다. 수압식 보형물은 모두 실린더, 펌프, 저장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펌핑하면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액체(생리식염수)가 실린더로 강제 이동되어 실린더 내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실린더가 팽창되면서 음경 백막도 함께 팽창되어 강직도를 얻게 된다.

성행위가 끝나면 실린더 내 액체를 다시 저장고로 회귀시켜 음경 이완을 이룬다. 그러나 비수압식 보형물은 발기된 페니스의 길이나 둘레가 자연 발기시보다 오히려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페니스의 크기가 크거나 수술 후 페니스의 크기에 관심이 많은 환자엔 바람직하지 않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바람직한 보형물은 역시 쓰리피스 수압식이다.

이것은 실린더, 저장고, 펌프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 세조각을 가느다란 튜브로 서로 연결시킨 것이다. 약 3cm 정도의 수술 창에서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작은 수술이지만 정교한 수술이다. ⑤7